

출판
과
에
대
해
알
고
있
습
니
까?

 박용두 기자

출판학과는 ‘외병중臥病中’이다. 출판학과의 외병 중이면 학계와 출판계, 그리고 정부가 전문치료를 시도하든가 최소한 문병은 와야 마땅한 법인데, 뒷 짐 지고 짐짓 모르쇠를 하고 있는 형국이니 ‘출판 강국으로 가는 대안, 출판학과’의 단초를 찾을 곳은 없다.

전국 대학 출판학과는 출판미디어과, 전자출판과, 디지털출판과, 미디어창작과 등 제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다. 이런 경향은 ‘출판학과’라는 정식 명칭이 지원자들에게 매력포인트로 작용하지 않는 데 있다. ‘출판’이란 단어에서 ‘밥벌이의 고단함’과 ‘비전 부재’를 눈치챘다는 것인데, 오래 전부터 등식화된 그 관념을 벗어버리지 못한 출판계는 이러한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김포대학 디지털출판과 남석운 교수는 “커리큘럼상의 큰 변화가 없는데 지원자를 의식해 정식 명칭 ‘출판학과’를 기피하는 대학의 현실이 안타깝다. 학과를 학부제로 변경하면서 한두 개의 커리큘럼만 남기고 출판학과의 명맥을 끊어버린 대학 또한 많다”고 출판학과의 현실을 전한다. 그는 출판학과로 들어오는 출판사의 취업의뢰 또한 전무하다시피하다며, 이 같은 상황이 거듭된다면 출판학과의 존재가 사라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까지 전망했다.

출판계 목소리 또한 비판적이다. 출판사 휴머니스트 김학원 사장은 “대개 전문대학과정으로 개설된 출판학과로는 출판실무교육을 만족할 수 없다. 출판학과 교수 역시 오랫동안 출판계에 몸담아 온 게 아니라, 신방과, 국문과, 미디어과 등 유사전공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다. 출판계가 만족할 만한 교육의 퀄리티가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라며 출판계가 쉽게 출판학과 졸업생을 떠안을 수

없는 현실을 진단했다.

죽비를 내리치는 마음이 애정에서 비롯된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산학 저마다의 입장표명 속에 정작 명드는 쪽은 출판학과 학생들이라는 사실이다. 전문대학 출판학과를 졸업하고 편입을 위해 둘러보면 출판학과의 개설된 곳은 제주에 소재한 탐라대학교와 충북에 소재한 세명대학교가 전부다. 그마저 쉽지 않아 학생과 졸업생이 사실 출판 전문가 과정에 몰려들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 역시 불완전한 출판학과의 아카데미즘을 증명하는 단서이다. 그렇다고 해서 양지를 배제하지는 않겠다. 출판계의 산실이 된 어느 대학의 출판학과는 출판교육 커리큘럼 전문화를 통해 출판계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맺고 있다. 또 출판현장에 몸담고 있는 일부 출판학과 졸업자는 시대 흐름에 맞춰 출판계도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출판학과 출신들이 대접받는 날 또한 멀지 않았다고도 단언한다.

일본의 경우 출판고시가 사법고시만큼 인기 있고, 언론사 취업보다 출판사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출판을 ‘밥벌이의 즐거움’, ‘확실한 비전’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그러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대안이란 말 속에는 미래가 담겨 있다. 그것은 미래로부터 답을 가져오라는 것이지 현재를 깊게 들여다보라는 것은 아니다. 출판학과와 출판학과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집 ‘후배가 선배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하나의 냉엄한 죽비이다.

“우리의 졸업을 출판계가 반가워하고 있을까요?…진심어리고 정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